


공동체 소식



주님 승천 대축일

전능하신 하느님, 성자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저희를
들어 높이셨으니, 저희가 거룩한 기쁨에 가득 차 감사의 제사를
바치며, 머리아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올라가신 하늘 나라에
그 지체인 저희의 희망을 두게 하소서.

5월 기도지향

- + 안병환 발렌티노, 안현숙 크리스티나 가정
- + 마이클 모렌, 이영민 엘리사벳 가정

오늘은 '주님 승천 대축일'입니다.

또한 오늘은 '아버이 날'입니다.

-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경건한 날입니다.

성모의 밤 미사를 준비하고 함께 한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맨하탄 공동체 미사

- 일시: 5.14(토) 오전11:30

본당 쉼기도 모임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모임시간: 매주 수요일 오전10:00, 본당 나자렛관.

병원방문 시 통역 도움 받으실 분들은 연락바랍니다.

- 통역지원자: 조지연 마리아 (913-948-2925)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파 견
141	221	166	아버이 노래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항 복사
이번주일	이원준 요한	문호진 안토니오
	김정원 안젤라	정병훈 보니파시오
다음주일	문예나 요안나	문호진 안토니오
	차민서 임마누엘	정병훈 보니파시오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김명은 안젤라	김정원 베드로 김말자 세실리아
차주	정수한 베드로	김태중 예레미야 김시연 엘리사벳

애찬 봉사자

금주	정지현, 한순례, 조지연, 유수경
차주	김화년, 안현숙, 정명숙

헌금 봉사자

금주	김태중 예레미야, 문석찬 요셉
차주	정수한 베드로, 김대성 사도요한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성체	헌금	교무금
5/1	70명	363불	1,000불
김창식, 박동희, 정수한, 김호원, 이혁구, 임창주, 홍순익, 김진미(총 8세대)			

주님 승천 대축일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2코린 4,18-

2016년 5월 8일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김대연 요셉 812.272.4770 moss0106@gmail.com

주임신부 홍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

회장 홍순익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회장 김태중 예레미야
M: 913.963.7521

재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주님 승천 대축일이며 홍보 주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시고 하늘에 올리시어 당신 오른쪽에 앉히신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을 받아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니게 된 부활의 희망을 알고, 주님의 이름으로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를 모든 민족들에게 전하며, 땅끝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기로 다짐합니다.

성화해설



그리스도의 승천 (지오토 디 본도네, 1302-1305, 스크로베니 성당)

예수님의 승천은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성부 오른쪽으로 들어 높이르신 구원 사건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수난과 부활, 승천 등 당신의 전 생애를 통하여 이루어진 하나의 업적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부활과 승천을 동일한 신비의 양 측면으로 보았고, 바오로는 승천의 가치가 인간 구원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승천은 신성과 일치된 인간의 승천이요, 그 인간이 구원되어 목적지에 도달함을 의미합니다. - 지영현 시몬 신부

제 1 독서 :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1,1-11

<예수님께서 사도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다.>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 모든 민족들아, 손뼉을 쳐라. 기뻐 소리치며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 경외로우신 분, 온 세상의 위대하신 임금이다.◎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노래하여라,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노래하여라, 우리 임금님께 노래하여라.◎

○ 하느님이 온 누리의 임금이시니, 찬미의 노래 불러 드러라. 하느님이 민족들을 다스리신다. 하느님이 거룩한 어좌에 앉으신다. ◎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1,17-23<또는 히브 9,24-28; 10,19-23>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하늘에 올리시어 당신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복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의 끝입니다. 24,46-53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강복하시며 하늘로 올라가셨다.>



쉐 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천상과 천하, 지상과 지하는 한자어로 하늘과 땅을 구분하는 표현들입니다. 하늘을 기준으로 천상, 곧 하늘 위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고, 천하인 하늘 아래는 하나님이 이외의 것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땅을 기준으로 지상은 사람이 사는 곳이고, 지하는 죽은 이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세상을 이렇게 천상, 천하, 지상, 지하로 구분하는 것은 대부분의 문화에 공통적입니다. 과학이 발전한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며, 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예술 작품을 만들 때 신적 존재들을 그림 윗부분에 그리거나, 성전 안에 제대를 만들 때 계단을 쌓아 올리며, 기도를 드릴 때 위를 쳐다보고, 죄를 지었을 때 고개를 땅으로 떨구는 등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이 하늘 위라는 공간에 계신 것으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행동합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이 하늘 저편에 있는 물리적 공간에 계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구름 저 너머 있구나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눈을 들어 물리적 공간인 하늘을 쳐다보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분임을 드러내는 행위지, 하나님이 구름 저편에 계시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독서와 복음은 예수님이 구름에 휩싸여 하늘에 오르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았다고 전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옛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름에 싸여 하늘 저 너머에 있는 어떤 물리적 공간으로 이동했다고 생각했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주선이 왕복하는 오늘 아이들마저도 예수님이 우주 공간 어디에 계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이 틀리지 않다며 하나님이 물리적 세상 저편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분이 계신 곳을 찾아

가 보려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도리어 이 물리적 세상 안에 매여 있는 분으로 만들어 버리는, 하나님을 세상 이치에 지배받으시는 분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초월성을 전혀 받아들이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의 세계를 완전히 초월하시는 분, 우리 이성으로 결코 파악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다는 말의 의미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승천은 예수님이 하늘 저편으로 물리적으로 이동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셨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과학적 지식이 없던 제자들을 보시며 예수님께서 직접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 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의 다른 기적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던, 또 제자들이 무엇을 보았던 예수 승천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초월자이시며 절대자이신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하는 자리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승천 사건 이후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육신을 지닌 채 머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 창조 이전부터 함께 계셨던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다스리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성체와 성혈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 주시어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도 당신을 기억해 내고, 또 당신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예수 승천을 기념하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충실히 살아 세상 마지막 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위로자 성령께 우리의 명오를 열어주시고, 우리를 세상 마지막 날까지 지켜 주십사 청합시다.

- 엄철호 신부 (부산가톨릭대학교 성서신학 교수)

주춧돌

예수님이 위선자라 비판한 바리사이파

예수님은 잘못을 저질러 당시 법으로 당연히 사형을 당해야 하는 여인에게 단 한 마디 꾸중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죄를 지은 여인에게 “나도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 다시는 죄짓지 마라.” 하시면서 자비로움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당신을 못 박아 죽이려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십자가 위에서 용서의 기도를 하신 한없이 너그러운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기도와 희생을 열심히 하 바리사이파 사람들을 만나면 흥분하시면서 욕설도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마태 23,1-35

바리사이라는 말은 '분리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즉 보통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철저히 율법 중심적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율법이란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혹은 실제 생활에서 열심히 지키는 법입니다. 바리사이파 사람은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죄인들, 특히 부당한 세금을 걷어 사리사욕을 채우는 세리 같은 사람을 무척 경멸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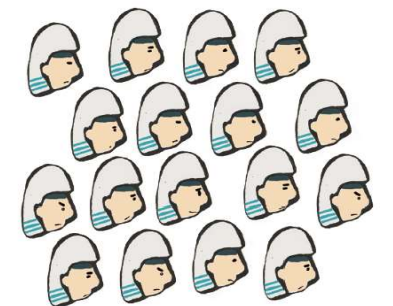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루카 18,9-14

예수님은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행동은 본받되 마음은 본받지 말라고 하시며 그들의 위선을 꾸짖었습니다. 위선이란 단순히 행동과 마음이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착한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바리사이파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비난하셨습니다.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마태 6,1-8

예수님은 스스로 잘난체하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에 대한 비난을 그치지 않았습니. 남들이 보는 앞에서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스스로 나팔을 불고 다닌다고 그들을 질책하셨습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 위선자라고 엄하게 하신 꾸지람은 실상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열심히 하더라도 자기 자신만 옳다고 생각하면서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바리사이파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꾸지람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 글 허영엽 신부 | 그림 임의준 신부 -

복음묵상

영원한 사랑

우리의 시간이 영원하려면
우리의 사랑이 영원하려면

우리 모두 영원한 존재가 되어야 한답니다.

잠시 떠나는 듯 보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영원한 사랑으로 남을 거랍니다.



이렇게 강복하시며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루카 24,51)

- 임의준 신부